

## 乙那神話와 耽羅國 散考

全 京 秀\*

신화라는 것은 그 신화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하는 옛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다. 신화가 우리들의 관심대상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신화의 내용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때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즉 신화에는 어떤 집단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관한 내용이 그려져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화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그 집단의 문화와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성해낼 수 있게 된다.

흔히 신화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신화적 사고는 황당한 것이고 합리적 사고는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신화를 허구적인 황당무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내용을 사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역사라는 틀만으로는 인간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흔히 기록된 문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부분을 전체 인간의 현상에 대비시킨다면, 빙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화를 사상시키게 되면, 또는 합리적 사고가 신화적 사고를 배격하게 되면, 기록된 역사라는 그릇이 담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현상인 신화가 설 자리는 없게 된다. 이러한 가상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화를 탐구하여 그 신화가 담고있는 문화의 내용을 그려냄으로써, 그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집단의 역사를 읽으려고 한다.

제주도에는 제주도의 형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설문대할망 신화”와 제주도에 처음으로 정착을 시도했던 집단에 관한 내용을 주로하는 소위 “삼성신화”라는 것이 있다. 전자는 창조신화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시조신화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제주도의 신화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 두 신화에 붙은 제목에서 부터 우리는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주인공은 순수한 한글로 적힌 “설문대할망”이고, 후자의 주인공은 한자로 표기된 “삼성”이다. 즉 후자는 한반도 또는 제주도에 한자가 도입된 이후의 세계관과 사고의 표현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에 관한 신화의 내용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는데, “삼성신화”라고 일컬어지는 신화의 내용에는 “삼성”이라는 용어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을나”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설문대할망 신화는 그 주인공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화의 명칭이 통용되고 있는데, “삼성신화”는 왜 “을나”라는 주인공을 지칭하는 용어 대신에 “삼성”이라는 용어로 그 신화의 명칭을 붙였는가? 왜 “을나신화”라고 하지 않았는가? “을나”의 의미와 “삼성”의 의미의 차이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918년에 간행된 김석익의 「탐라기년」에는 “을나… 향언왕”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이 풀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을나들은 모두 한 집단의 우두머리(chief)들임에 틀림없다. 삼성이라는 것은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존하는 세성반이와 그들 집안의 시조들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을나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신화를 해석하는 입장

과 삼성이라는 의미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신화를 해석하는 입장에는 역사를 보는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신화에서 을나의 의미를 부각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 신화가 내포하는 정치적인 집단과 그 집단의 우두머리의 정치적인 위상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성의 의미에 우리의 견해를 집착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 신화의 분석수준을 성씨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문제로 축소시키게 되는 논리적인 틀 속에 안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리고 신화적인 시간을 생각해볼 때, 과연 “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의미를 갖게 될 지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성씨중심사상이라는 것이 후대에 성립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논증되어 있고, 성씨중심사상에 의해서 신화를 분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삼성신화”라는 제목을 달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필자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삼성을 부각시켜서 그 신화의 제목을 “삼성신화”라고 정한 것은 신화를 해석하는 후대의 입장이 명백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 신화의 어느 구석에도 “삼성”이라는 단어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신화의 제목을 “삼성신화”라고 한 것은 후대에 생긴 성씨중심사상의 개입이라는 여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신화의 제목은 “을나신화”이어야 하고, 이 신화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을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문제로 귀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신화인식의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을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화의 내용이 왜 그리고 어떻게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화의 내용으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신화의 내용은 그 신화가 표방하는 시간대에 있었던 탐라국의 정치적인 사건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후대에 강화되는 성씨중심사상에 의해서 신화의 내용이 가족중심의 사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정치적 사건이 한 집안의 가족적 사건으로 축소조작되는 과정

은 상당한 시간의 개입과 고도의 간접조종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에, 이 신화에 담긴 내용의 축소조작과정이 바로 그들에 숨겨진 제주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축소조작과정에서 외부세력의 개입과 내부세력의 부화뇌동이 바로 제주도 역사의 이면이라고 생각된다. 신화가 담고 있지만, 명시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묵시적인 생략으로서 담고 있는 이 이면사를 읽어냄으로써, 우리는 제주역사의 역동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을나신화가 삼성신화로 축소조작되는 과정의 일부를 열어 내는 작업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사건의 축소조작과정에는 항상 그 결과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주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자료와 그 자료들이 보여주는 고고학적 시간대를 정해놓고 제주문화의 상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제주는 분명하게 “탐라국”이라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탐라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헌들이 뒷받침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 탐라국의 존재는 주변국가들과의 국제적인 관계를 설정하였었고, 그 관계맺음의 양상이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가 바로 1928년 제주 시 산지향 축조공사시에 용암괴 사이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다. 이 유물들 중에는 청동거울 2개, 칼의 장식 1개, 오수전 4개, 화천 11개, 대천오십 2개, 화포 1개 등이었다. 이 유적의 절대연대는 주조연대가 확실한 오수전과 화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오수전은 전한 시기인 기원전 118년부터 주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왕망의 신나라가 화천을 주조한 시기에는 오수전의 사용 및 주조가 금지되었고, 동한(후한)이후 오수전은 재주조되어 통용되었다. 그리고 「한서 식화지」에 의하면, 화천 즉 왕망전은 기원후 14년에 주조된 것으로서 신나라가 망하는 기원후 23년 까지 사용되었다. 결국 산지향에서 출토된 오수전과 화천의 일괄유물은 당시의 국제무역에 의한 탐라국의 활동을 편린으로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탐라국이 독자적인 국가로서 무역을 하던 이웃의 상대들은 동일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황해도 남쪽의 해안지대,

김해와 마산지역의 구야국(후일의 가야), 현재 일본의 대마도와 구주 및 서일본지역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들에 존재했던 거의 유사한 정도의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던 국가들간의 오수전과 화전을 매개로 한 국제무역의 흔적이 바로 고고학이 밝혀준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국가로서의 탐라국의 위상이 후일 백제의 부용국 즉 독립국이긴 하지만 백제에 부속되어 있는 국가로서의 탐라국의 위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을 줄 수 있는 단서들이 없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백제의 융성과 백제의 대일본 무역 그리고 그 무역로의 중간지대에 있는 탐라국의 위치라는 문제를 상정하고 앞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독립국이었던 탐라국이 백제의 부용국으로 전락되고, 서기 1105년에 고려의 탐라군으로 복속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기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나라가 고려를 식민지화한 이후에는 제주에 탐라총관부가 설치됨으로써, 원나라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고려와 탐라를 대등한 지위에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은 원나라가 고려를 약화시키려는 저의에 의해서 행한 것이지만, 원나라가 이러한 정치적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탐라국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나라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고려가 독립할 즈음 탐라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원나라의 황제가 탐라에 별궁을 지어서 이주할 계획을 하였던 것이다. 그 계획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당시 탐라는 원나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문제와 고려로부터의 독립을 통하여 옛 탐라국의 국권회복이라는 문제 인식의 구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삼별초의 항몽사건을 보는 시각에서도 추출될 수 있다.

삼별초와 관련된 전설들을 검토해보면, 당시 제주인들은 여몽연합군의 편도 아니고, 여몽연합군에 적대해서 고려의 국권을 회복하려는 삼별초의 편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탐라국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고, 이러한 인식은 원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틈탄 탐라국의 국권회복이라는 문제의 제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탐라인들에게는 일종의 위기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위기적인 상황하에서 탐라인들은 그들의 탐라국 신화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나라가 물러가고, 고려가 독립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탐라에서도 국권회복의 인식이 표출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인식의 연장은 여말선초의 역사적 변화속에서도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표현으로써, 당시의 탐라에서는 을나신화가 인구에 회자하였을 것이고, 이 신화는 조선정부의 중앙에까지 연결되어 「고려사」를 집필하던 양성지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게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국기가 흔들리거나 국권을 회복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는 단군신화를 거론하던 백락과 거의 유사한 일이 제주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고려가 망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선의 등장이 바로 탐라국의 국권회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여 독립국이던 탐라국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한반도에 등장한 국가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한반도의 주변부로 전환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양성지가 「고려사」를 집필할 당시 즉 을나신화를 기록에 남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신화의 내용이나 이 신화의 해석에 있어서 성씨라는 개념 즉 “삼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말선초까지 이 신화의 본질적인 의미는 탐라국의 국권회복이라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을나신화는 「고려사」라는 정치적인 관찬사서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을나신화를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삼성”의 개념이 대두되는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삼성”의 개념이 등장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고려사」에 등장하는 을나신화의 내용과 소위 「영주지」에 등장하는 을나신화의 내용을 비교해 본 사람들 중에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신화적인 요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작성연대가 더 오래된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양성을 갖고 있는 양성지가 「영주지」속에 있는 을나신화의 내용을 「고려사」에 옮길 때, 「영주지」에 있는 성씨의 순서인 “고, 양, 부”를 「고려사」에서는 “양, 고, 부”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영주지」라는 것이 「고려사」보다 먼저 작성된 문건이라는 증거가 없다. 혹자는 「영주지」가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영주지」의 내용이 바로 이 신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가 2년여에 걸쳐서 규장각을 뒤졌으나, 「영주지」라는 것은 규장각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영주지」라는 것은 장서각에 보관된 필사본으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만 확인되어 있다.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영주지」는 고씨의 족보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주지」가 「고려사」보다도 시대가 앞선 문서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희박하다.

둘째, 고씨의 족보에 있는 내용의 신화는 고씨 집안의 부탁에 의해서 영의정을 지낸 정이오라는 사람이 작성해준 것이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정이오는 고씨 집안의 부탁으로 이러한 문안을 작성하노라 하는 글귀가 있다. 거의 이 무렵에 과거에 급제했고 중앙에서 벼슬을 지낸 경험이 있는 고씨 집안의 후손이 이러한 집안의 문제를 거론하였다가 하위지에게 호통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명심해둘 일이다. 즉 을나신화는 조선초기에 성씨의 개념이 들어가는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었던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양성지가 「고려사」에서 성씨서열을 고의적으로 “양, 고, 부”로 했었는지의 사실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고씨 집안사람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성씨서열이 “고, 양, 부”로 정착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주로 읽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조선초기부터 성숙하기 시작한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성씨와 가문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영향하에서 을나신화에 등장한 성씨의 서차문제에까지 신경을 쓰게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성리학의 영향이 중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주변적인 성격을 띠고서 주변지인 제주

도에서 더욱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을나신화에 등장하는 성씨의 서차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상황으로 낙인된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미 필자가 밝힌 바와 같이, 을나신화의 등장은 여말선초의 급변하는 국제정치적인 상황과 그에 대처하려는 시각 즉 과거의 탐라국을 염두에 두고 분리주의를 통한 탐라국의 국권회복의 의미가 담긴 시대적인 배경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탐라인들의 분리주의적인 인식은 조선이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권의 등장으로 인하여 쉽사리 좌절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주자학을 배경으로 하는 성리학의 대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가문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문의 위세를 생각하는 특정 집안의 지식인들이 을나신화를 집안의 문제로 축소시켜서 생각한 것 같다. 즉 국권회복이라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었던 을나신화는 집안의 위세를 생각하는 차원으로 격하된 것이며, 여기에는 성리학이라는 학문과 사상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조에는 제주도에 파견되어온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삼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삼성”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상소의 형태로 또는 복명서의 형태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삼성묘”를 조성하는 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현재의 “삼성혈”에 있는 건물들이 그러한 맥락하에서 조성된 구조물들의 유혼인 것이다. “삼성묘”를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로 중앙정부에서 종묘를 세운 것과 유사한 성리학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창시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성씨 세분을 중심으로 종묘와 같은 것을 제주도에 조성함으로써, 제주도의 민심을 얻자는 중앙정부의 계산이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을나신화는 완벽하게 성씨를 고려하는 차원의 문제로 정착되었고, 을나신화로 보는 입장이 성씨라는 문제에 국한되면서 신화의 명칭을 “삼성신화”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의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완벽하게 사상적으로 복속하게 된 것의 결과가 바로 보편적인 왕 또는 우두머리라는 개념으로서의 “을나”를 대체하



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집안을 지칭하는 “삼성”을 제안한 것이다. 즉 정치 집단을 대표하는 을나를 집안의 대표자로서 격하하는 작업을 조선정부와 그 관리들이 행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은 일본이 조선을 정복한 이후에 조선을 “이씨조선”이라고 명명한 것과도 거의 일치되는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리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식민통치라는 구도에서 행하는 일종의 구조적인 방안으로서 정치집단의 문제를 가족집단의 문제로 격하함으로써 의도적인 사상적 식민주의를 포함한 것이다.

필자가 수집하고 있는 제주도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들의 상황으로 보아서 “삼성신화”라는 단어가 조선조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필자의 과묵한 탓도 있겠지만, 현실을 중시하는 조선조의 성리학적인 분위기가 “집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심각한 논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삼성묘”라고 하여 구조물도 조성하고 “그 집안 사람들과 지방관리들”로 하여금 제례도 드리도록 하는 실질적인 행사들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구적인”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신화”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통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전언에 의하면, 일제시대의 조선어독본에 등장한다고 한다. 일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집필된 조선어독본에 을나신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제목을 “삼성신화”라고 한 이 신화의 등장 의미는 무엇인가? 조선어를 말살하고 조선의 정신을 꺾어버리려고 했던 일제가 조선어라는 교과서를 편찬했던 과정이 그들의 식민정책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달성하려고 했던 점을 염두에 둘때, “삼성신화”의 등장은 단군신화의 누락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단군신화는 허황한 것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여 조선의 역사에서 삭제했던 일제가 조선어독본에 “삼성신화”를 등장시킨 것은 단군신화의 삭제에 대한 일종의 보상행위라고 할 수 있다. “꿩 대신 닭”이라고나 할까. “닭” 치고는 안성맞춤인 닭인 것이다. 이미 조선인들에 의해서 국권회복이라는 차원의 의미로 상실한 을나신화는 일개의

집안의 일로 격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들은 이미 “삼성”이라는 성씨와 관련된 일로 윤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 신화를 “담”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탐라국의 국권회복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던 을나신화는 중국으로부터 이전 및 변형된 성리학적 사상과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가족주의와 성씨중심사상에 의해서 가문위세라는 가족적인 의미를 전락되었고, 이러한 과정에는 조선초기에 중앙으로 연결되는 벼슬을 지낸 고씨 중심의 지식인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사상적 식민주의에 의한 신화의 의미변경이라고 풀이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중앙집권적인 조선정부로부터 분리주의에 의한 탐라국의 이탈을 막는데 암암리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을나신화의 중심개념은 성씨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을나신화는 일제의 문화식민주의적 정책과정에서 “삼성신화”라는 제목으로 포장되고, 조선의 국권회복운동과 그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교과서 제작에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국권회복의 정치적인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삼성신화”를 단군신화 대신에 교과서에 삽입시킴으로써, 단군신화가 교과서에 등장함으로써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선의 국권회복정신을 사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선인들 사이에서 집안 싸움의 불씨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삼성신화”를 교과서에 등장시키는 것은 신화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분열상의 사례를 암암리에 심어주려는 저의의 발로이다.

즉 탐라인들의 을나신화는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정책에 이용된 가족주의와 성씨중심사상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의미변화를 경험하였고, 이차적으로는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정책에 이용당했다고 생각된다. 탐라에 대한 조선의 식민주의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주의가 중첩적으로 가중되면서, 을나신화의 중심개념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집안문제의 차원으로, 을나신화의 명칭은 “삼성신화”로 정착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이 신화의 내용은 어떠한가?

“삼신인”이 “從地湧出”하였다든 것은 “삼신인”으로 대표되는 삼신인 집단이 탐라의 토착세력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삼신인은 세계의 소집단들이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각각의 소집단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엮어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룬다. 그리고 그들이 “종지용출”한 곳이 “모홍”이라는 굴인데, 이 話素로부터 필자는 정치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소집단들이 한군데 모여서 공동체적인 결속을 한 사건의 반영을 읽어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씨족적인 차원의 토착세력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통합이라는 과정을 경험하고, 씨족적인 차원의 사회조직 즉 혈연중심의 소집단들이 혈연을 뛰어넘는 지역조직의 공동체 속에 정치적으로 귀속되어 하나의 부족사회 또는 추장사회를 이루는 과정의 표현으로서 “종지용출”의 의미를 새길 수 있다.

“삼신인”이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소집단들은 혈연적으로는 부계혈통(patrilineal descent)의 원리에 의하여 사회조직의 양상이 전개되었던 것 같고, 씨족적 배경을 달리하는 세 부계집단이 하나의 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 신화의 머릿부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신인을 “長, 次, 三”으로 서열화 시킨 것은 부족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소집단들로서의 부계혈통 세력들을 상대적으로 비정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 표현을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서열상의 씨족집단의 존재로 해석하고, 그 씨족집단들간의 계층화 현상으로 파악하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射矢卜地”의 의미와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시키게 된다. 삼신인이 각각 활을 쏘아서 각자의 거소를 정한다는 화소의 내용은 평등사회의 경쟁원칙을 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기 때문에, “장, 차, 삼”의 서열화를 위계적인 서열우위의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선후맥락을 상실하는 경우를 초래한다. 바로 이부분이 후일 성씨중심사상에 의해서 확대해석되는 경향을 낳은 것은 후일의 성리학적 사상의 영향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고을나”가 대표로 있는 집단, “양을나”가 대표인 집단, 그리고 “부을나”가 대표로 된 집단의 연맹체인 추장사회 또는 부족사회의 형성이 탐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편제 또는 사회구성체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상고 탐라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변화의 원인과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변화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즉 탐라사회가 특정의 부계혈통 중심적인 혈연공동체로부터 탈피하여 정치적인 연합체적인 성격을 띤 보다 큰 지역중심의 지연공동체로 이행한다는 현상은 탐라사회 내부의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내부의 경쟁이라는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라는 문제가 탐라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는 심증이 강하다. 당시 정치적 성격을 띤 지연공동체로의 변화요구는 탐라사회 내부의 모순해결과 외부의 압력수용이라는 기능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부의 모순이라는 것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의 변화와 정치집단의 등장이 설명되어야 하는 가상적인 조건으로서 내부모순과 외부압력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탐라사회에서는 강하게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음에 이어지는 화소에 의해서 입증된다. 그것이 바로 “처자삼인”(처녀삼인)과 “벽랑국사”(일본국사)의 등장이다. 이들의 등장이 외부압력 또는 외부와의 갈등관계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들의 등장이 삼신인 집단으로 하여금 부족사회 또는 추장 사회로의 지연공동체적인 정치집단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결과가 신화의 화소로 유전된 것으로 생각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씨족연합에 의한 지연공동체적인 탐라부족의 형성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몇가지의 화소에 의해서 탐라부족의 형성이란 문화적 의미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탐라부족이 벽랑부족(또는 그 이상의 정치집단적인 형태)과 혼인에 의해서 결연관계를 맺는 상황의 전개가 을나신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결연관계라는 것은 외적인 확장을 주요 골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연관계를 주축으로 하여 탐라사회가 변화를 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즉 삼신인 집단을 주축으로 하는 탐라부족은 外婚制(exogamy)의 원칙에 근거하여 혼인을 실시하며, 이러한 외혼제를 원칙으로 택하는 곳에서는 內婚制(endogamy) 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외부와의 연결이 복잡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혼인과정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우리” 집단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원칙을 하는 사회와 “우리” 집단 밖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 사이에는 사회조직이 운영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외혼제 때문에, 탐라부족은 벽랑부족으로부터 여성을 데리고 오고, 여성이 남편의 곳에 와서 산다는 내용의 화소로 볼 때, 이 사회에서는 혼인후의 거주규정상 부거제(virilocality) 즉 혼인후 여자가 남편쪽에 와서 사는 방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여 탐라국과 벽랑국 사이에는 혼인에 의한 결연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결국 탐라부족사회는 외부와의 혼인동맹을 근거로 한 결속관계를 기재로 하여 자체내에 형성되어 있었던 부족공동체보다는 상위의 복잡한 정치집단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탐라국이라는 실체를 언급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토착민인 삼신인 집단의 경제생활은 수렵채집을 배경으로 하고, 이주민인 삼척자 집단은 농경과 목축기술을 갖고 있는 집단의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주민이 토착민보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선진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주민이 침략과 정복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방법으로 토착민에게 접근하고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토착민인 탐라부족이 외부로부터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이후 탐라국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주민이 토착민인 탐라부족에게 쉽사리 동화되었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적인 기술인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여 탐라부족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보다 더 고도의 정치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기술경제적인 기초에 의한 잉여생산이라는 조건은 필요한 일이다. 삼신인과 삼척자가 혼인후 “사시복지”하여 각 쌍을 중심으

로 “일도, 이도, 삼도”의 집단거소를 정한다는 내용에서 탐라부족사회의 경제적인 변화는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이주민이 전해준 농경과 목축기술을 습득한 탐라부족사회는 수렵채집경제의 단계로부터 정착농경경제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착농경에 필수적인 조건이 농경지의 확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활을 사용하여 각자의 위치를 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장, 차, 삼”의 서열이 결코 위계적인 힘을 바탕으로 표현된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힘을 배경으로 한 위계에 의해서 서열이 구분되어 있었다면, 구태여 각자 활을 쏘아서 배타적인 농경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신화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탐라사회의 현상에 대한 몇가지의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부계혈통, 외혼제, 부거제 등이 암시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수렵채집단계로부터 정착농경단계로 이행했다는 과정이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는 혈연중심의 씨족사회의 형태로 지연중심의 부족사회의 형태로 변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주민의 등장은 탐라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것 같고, 이후 탐라국의 형성은 이와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신화를 “삼성신화”라고 명명하고 성씨중심사상의 틀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 신화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며, 탐라국과 관련이 있는 이 신화를 “안팎 곱사등이”의 형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안쪽의 곱사등이는 조선조와 그와 관련된 사상에 의해서이고, 바깥쪽의 곱사등이는 일제와 그에 관련된 저의에 의해서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신화를 “을나신화”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 신화의 주내용은 탐라부족사회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